

김창환 교수의 논어 강좌-

박재학 교수의 논어 노트

김창환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를 졸업하였다.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현, 한국고전번역원) 국역연수원에서 유가 경전과 제자백가 등을 공부한 뒤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에서 중국고전문학을 전공하였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중국어교사 특별양성과정에서 초빙교수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문학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중문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도연명의 사상과 문학”, “중국의 명문장 감상” “중국어 유래 어휘사전”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장자”가 있으며 주요논문으로 “논어를 통해 살핀 공자의 교수법” 등이 있다.

김창환 박사와는 30년 지기의 친구로 평소 그의 학문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에게로부터 周易을 배우고자 하였다. 김박사는 나의 생각이 엽등 [躒等]이라며 논어부터 배울 것을 제안하였다. 논어를 배우면서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이 많이 정리되고 있다. 올바른 길 즉 道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 김창환 박사의 강의를 기록하여 노트를 만들고자 하였다. 앞으로 김창환 박사의 논어 해설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

爲政 第二

01 子曰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而衆星共之

1. 공자가 말씀하였다. 정치를 덕으로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제 자리에 있고 수많은 별들이 그 북극성을 향하는 것과 같다
2. 爲政以德: 덕으로 정치[德治]를 하면 감화되고 교화되어 良心이 생긴다.
3. 法治를 하면 避罪를 하려 한다.
4. 譬: 비유 할 비
5. 北辰 (북신): 북극성을 말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北極星을 德治에 비유. 千字文 중 辰宿列張 (별 신, 별자리 수, 별릴 열, 펼 장)은 별과 별자리가 널려있고 펼쳐져 있다는 뜻이다. 千字文은 중국 남조(南朝) 후량(後梁)의 주흥사(周興嗣)가 하룻밤 사이에 짓고서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고 하여 白首文이라고도 한다.
6. 共: 향하다 (向)

02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 思無邪

1. 공자가 말씀하였다. 시경 삼백수를 한마디로 단정지어 말하자면,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
2. 詩는 詩經으로서 총 305수
3. 蔽: 단정짓다. 가리다.
4. 思無邪: 간사할 邪(사),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 (진정에서 나온 것이다).

03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1. 공자가 말씀하였다. 정치체도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형벌로 사람들을 가지런하게 하면 백성들은 벌을 면하지만 수치심이 없다. 덕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예로 사람들을 가지런하게 하면 염치가 있게 되고 또 선에 이를 것이다.
2. 道: 도, 인도하다 導와 같은 뜻
3. 政: 정, 정치제도 법령
4. 齊: 가지런할 제
5. 格: 이를 격. 格物致知
6. 廉恥(모서리 염, 부끄러워할 치: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다, 청렴하다). 賂物(뇌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四知'라는 말이 있다. 즉 天知 (하늘

- 이 알고), 神知 (신이 알며), 子知 (그대가 알고), 我知 (내가 안다) 이다.
7. 德治는 修己治人之學으로서 大學之道이다. 小學은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책으로서 洒掃應對進退之節(灑掃應對進退之節)의 내용을 담고 있다.

04-1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1. 공자가 말씀하였다. 열다섯이 되어 학문에 뜻을 두었고
2. 十有五: 열하고 또 다섯, 有는 又의 뜻이다.
3. 于: 어조사 우
4. 志는 이후에 모두 생략되었지만 이후 나오는 각 연령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04-2 三十而立

1. 삼십이 되어 가치관이 확립되었고
2. 立: 가치관의 확립, 도의 확립

04-3 四十而不惑

1. 사십이 되어 일에 대하여 의혹이 없게 되었으며

04-4 五十而知天命

1. 오십이 되어 天命을 알았고
2. 中庸의 天命之謂性(천명지위성) 率性之謂道 (솔성지위도) 修道之謂教 (수도지위교) 구절에서 보듯이 하늘이 명해준 것을 人性이라 하고, 인성을 따르는 것이 道이며 道를 닦는 것이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之는 목적어 도치를 표시하는 용법이다. 中庸은 변하는 가치인 中과 (예를 들면 효도를 하는 방법) 변하지 않는 가치인 庸 (예로 효도, 신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04-5 六十而耳順

1. 육십이 되어 상대가 하는 말이 순순히 받아들여졌으며
2. 耳順: 귀가 순해진다.

04-6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1. 칠십이 되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도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
2. 矩(구): 規 (규)는 원형을 그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 矩(구)는 직각을 그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 準(준)은 수평을 측정하는 도구, 繩(승)은 먹줄을 이용하여 직선을 그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 이러한 기구들은 척도의 기준이 되며 원칙, 준칙, 규칙을 뜻하게 된다. 矩은 所以爲方者也: 爲方의 方은 직각을 뜻한다. 따라서 矩는 직각을 만드는 기구이다. 方正은 곧고 바르다, 方形은 네모를 가리킨다.
3. 止於至善의 경지를 말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연령을 표시하는 한자들

1. 15岁: 志學. 笄年 (계년) 여자의 성년식에 비녀를 꽂는다.
2. 16岁: 破瓜 (파과:과(瓜 오이)를 반으로 자르면 八자가 두 개 생겨 16이 된다. 瓜年.
3. 30岁: 立年, 壯年
4. 40岁: 不惑, 强仕
5. 50岁: 知命, 艾年 (애년, 삭이 철이 되면 하얗게 변한다)
6. 60岁: 耳順, 六旬
7. 70岁: 從心, 古稀
8. 77岁: 喜壽 (喜자는 七十七을 종으로 세워놓은 것처럼 보인다)
9. 88岁: 米壽 (米자는 八十八을 종으로 세워놓은 것처럼 보인다)
10. 99岁: 白壽 (白은 百에서 一을 뺀 99)
11. 100岁: 百年, 期頤 (100세가 한 期이며 頤(이)는 공양 받을 나이를 의미한다. 百年偕老 (백 년 동안 같이 산다), 百年後 (돌아가신 뒤에)
12. 望(망): 멀리 본다. 望八은 71세, 79세가 아님. 望拜檀은 멀리바라 보면서 절하는 제단

05-1 孟懿子問孝 子曰 無違

1. 大夫인 孟懿子(맹의자)가 효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말씀하였다. 도리를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2. 예를 들어 大夫가 제후나 천자의 예로 孝를 하면 효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05-2 樊遲御 子告之曰 孟孫問孝於我 我對曰 無違.”

1. 번지가 수레를 모는데 공자가 그에게 말씀하였다. 맹손이 나에게 효를 묻기

- 에, 도리를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2. 御 (수레를 몰다)
 3. 혹시 맹의자가 공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 할 까봐 번지를 통하여 그 뜻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

05-3 樊遲曰 何謂也 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1. 번지가 무슨 말씀 입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말씀하였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 모시고, 돌아 가셨을 때는 예로 장사 지내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제사 지내는 것이다.
2. 何謂也: 무슨 말입니까? 事: 섬기다, 모시다.

06 孟武伯問孝 子曰 父母唯其疾之憂.

1. 맹무백이 효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말씀하였다. 부모는 오직 자식의 병에 대하여 근심하신다.
2. 唯其疾之憂: 其疾이 憂의 목적으로 도치될 때는 之를 사용한다.

07 子游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1. 자유가 효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말씀하였다. 지금의 효라는 것은 잘 奉養하는 것을 일컫는데, 개나 말에 이르러서도 모두 양육해줌이 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별하겠는가.
2. 能: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대로, 잘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08 子夏問孝 子曰 色難 有事 弟子服其勞 有酒食 先生饌 曾是以爲孝乎?”

1. 자하가 효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말씀하였다. 부모를 섬길 때에 온화한 안색을 지니기가 어렵다. 부모에게 일이 있을 때 弟子가 그 수고를 하고, 술과 음식이 있을 때 그것을 부모가 드시게 하는 것을 일찍이 효라고 하였던가.
2. 色難: 온화하고 즐거운 모습을 지니기가 힘들다.
3. 食: 먹을 식, 밥 사, 先生: 어른, 부모, 以爲: ~라고 하다·여기다. 曾: 일찍이
4. 弟子에게 술과 음식이 있을 때 그것을 부모가 들게 하는 것을 일찍이 효라고

- 하였지만, 안색을 함부로 하면, 이것을 효라고 여길 수 없다는 뜻이다.
5. 이상과 같이 孝에 대하여 제자에 따라 각각 다른 말씀을 하였다. 공자는 사람을 가르칠 때에는 각자의 재질이나 형편에 따라서 하였다 (聖人教人 各因其才)

09 子曰 吾與回言終日 不違如愚 退而省其私 亦足以發 回也不愚.”

1. 공자가 말씀하였다. 내가 회와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였는데, 내 말을 어기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회가 물러나고 그의 사생활을 살펴보니, 역시 충분히 가르친 이치를 밝힌다. 회는 어리석지 않구나.
2. 言終日 (終日是 보어로 사용되었다.)
3. 退而省其私: 회가 退하고 공자가 省하다
4. 足以: 충분히 ~하다, 조동사

10 子曰 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 人焉廋哉

1. 공자가 말씀하였다. 그가 하는 바를 보고 그가 말미암는 것을 관찰하며, 그가 편안히 여기는 것을 살펴본다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2. 視其所以: 그가 하는 바를 보다. 其는 그를 뜻하고 以는 爲의 하다라는 뜻이다. 爲善者爲君子 爲惡者爲小人 선한 일을 하는 자가 군자이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소인이다 (앞의 爲는 하다 뒤의 爲는 이다 라는 뜻).
3. 觀其所由: 由는 말미암다. 연유하다, 그가 말미암는 것을 관찰하며
4. 人焉廋哉: 廋 (수)는 숨기다. 哉는 어조사.
5. 視는 보다, 觀은 신경 써서 세밀히 분석, 察은 마음가짐까지 세밀하게 살핌.

11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1. 공자가 말씀하였다. 옛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2. 溫: 따뜻하게 하다. 익히다, 복습하다
3. 可以는 조동사로서 ~할 수 있다. 爲는 되다

12 子曰 君子不器

1. 공자가 말씀하였다. 군자는 용도가 일정하게 정해진 그릇 같은 존재로 한정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쓰일 수 있다.
2. 君子는 有德者, 器는 한정된 곳에 쓰이는 존재를 비유한다.

13 子貢問君子 子曰 先行其言而後從之

1. 자공이 군자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말씀하였다. 먼저 그 자신이 할 말을 실천하고 그 후에 말이 나온다.
2. 先: 먼저 (부사). 其言: 그 자신이 할 말
3. 從之: 之는 실천 한 것을 의미, 말이 실천 한 것을 뒤 따르게 하다. 실천을 먼저 한다는 의미
4. 子貢은 항상 비교를 잘하였고 말을 많이 한 제자였다.
5.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군자는 의를 잘 알고 소인은 이익을 잘 안다. 義는 공이며 利는 私이다.

14 子曰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

1. 공자가 말씀하였다. 군자는 두루 어울리며 무리 짓거나 사사로이 가까이하지 않는다. 소인은 무리 짓지만 두루 어울리지 않는다.
2. 比(비)는 사람이 앞으로 나란히 서있는 모습이다. 櫛比 (빗의 빗살처럼 나란하다), 비교하다. 가까이하다. 편먹다. 패거리가 되다. 背 (달아날 배, 북녘 북)은 서로 반대로 서있다는 의미. 敗北: 패해서 등지고 도망간다는 뜻. 背(배)는 등의 뜻

15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1. 공자가 말씀하였다. 남을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깨닫는 것이 없다. 즉 독창성이 없다.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그것은 공상적이며 증거가 없게 된다.
2. 學은 흥내내다. 배우다

16 子曰 攻乎異端 斯害也已

1. 공자가 말씀하였다. 성인의 도가 아닌 다른 분야를 전공하면 해로울 뿐이다.
2. 端: 끝 또는 처음. 端午는 음력 매달 처음의 5일을 뜻함 나중에는 음력 5월5일을 의미하게 됨. 四端은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네 가지 仁義禮智를 이룰 수 있는 시발점, ① 측은지심(惻隱之心) 측은해하는 마음 ②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③ 사양지심(辭讓之心) 사양할 줄 아는 마음 ④ 시비지심(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 이것들이 각각 仁義禮智의 시발점이다.
3. 乎: 목적어 표시
4. 也已: ~일 뿐이다.

17 子曰 由 誨女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1. 공자가 말씀하였다. 자로야, 너에게 아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마.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2. 誨(회): 가르치다. 女(汝 너), 乎: 어조사, 문장을 부드럽게 한다.
3. (以)爲: ~라고 말하다. ~라고 여기다
4. 2인칭 대명사: 汝, 女, 爾(尔 ▶ 이 你 니), 若(약), 子, 君, 公
5. 1인칭 대명사: 我, 吾, 予(여), 余(여), 朕(짐), 寡人(과인), 小人, 僕(복), 妾(첩). 吾喪我: 나는 주관적인 나를 버렸다.

18 子張學干祿 子曰 多聞闕疑 慎言其餘 則寡尤 多見闕殆 慎行其餘 則寡悔 言寡尤 行寡悔 祿在其中矣

1. 자장이 녹(봉급)을 구하는 법을 배우려 하자, 공자가 말씀하였다. 많이 듣고 의심나는 것은 빼놓고 그 나머지 것들을 신중하게 말하면 허물이 적고, 많이 보고 위태로운 것은 빼놓고 그 나머지 것들을 신중하게 행하면 후회가 적은 것이니, 말에 허물이 적고 행실에 후회가 적으면 녹은 그 가운데 있으리라

19 哀公問曰 何爲則民服 孔子對曰 舉直錯諸枉 則民服 舉枉錯諸直 則民不服

1. 노나라 군주인 애공이, 어떻게 하면 백성이 복종할 것인가를 묻자 공자가 대답하였다. 바른 사람을 채용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을 버리면 백성이 복종하

고, 바르지 못한 사람을 채용하고 바른 사람을 버리면 백성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20 季康子問，使民敬忠以勸 如之何 子曰 臨之以莊則敬 孝慈則忠 舉善而教不能則勸

1. 노나라 대부인 계강자가, 백성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충성하게 하며 선을 권장하려면 어찌하면 될까를 묻자 공자가 말씀하였다. 백성을 대하기를 중후함으로 하면 공경하고, 효도하고 자애로우면 충성하고 선한 사람을 등용하고 잘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면 권장됩니다.

21 或謂孔子曰 子奚不爲政 子曰 書云 孝乎惟孝 友于兄弟 施於有政 是亦爲政 奚其爲爲政

1.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어찌하여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공자가 말씀하였다. 書經에서 효에 대하여 말했지. 오직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로워 정사에 베풀다고 하였으니 이것 역시 정치를 하는 것이니 어찌 그것만이 정치를 하는 것이겠는가?
2. 書는 書經의 고유명사로 사용 될 수도 있고 글이라는 보통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詩도 詩經의 의미와 시 또는 운문이라는 보통 명사로도 사용 될 수 있다. 시경의 한구 절 중 無父何怙 無母何恃 (무부하호 무모하시: 아버지가 없으면 누구를 믿고살고 어머니가 없으면 누구를 믿고살까- 호시는 부모를 일컫는다).
3. 友는 벗, 사귀다, 우애롭다의 의미이다. 于是 어조사우 -에서 -부터. 友于兄弟에서 비롯되어 友于를 형제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4. 孝悌를 잘하면 爲政을 잘하는 것이고 修己를 잘하면 治人을 잘 하는 것이다.
5. 한 개의 글자로 된 한자에 有를 붙인다.

22 子曰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輓 小車無軌 其何以行之哉

1. 공자가 말씀하였다. 사람이면서 신의가 없으면 그 관촬음을 알 수 없다. 큰 수레에 수레체 마구리가 없고 작은 수레에 멩에막이가 없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다닐 수 있겠는가.
- 2.五常은 사람이 항상 행해야 하는 5가지 덕목(德目)으로서 인(仁)·의(義)·예

(禮)·지(智)·신(信)을 가리키며, 五倫은 사람의 기본적인 인간 관계, 즉 부자유친(父子有親)·군신유의(君臣有義)·부부유별(夫婦有別)·장유유서(長幼有序)·붕우유신(朋友有信)을 말한다. 이들의 공통덕목으로서의 信은 혈연관계와 함께 사회 관계를 지탱하는 2개의 고리이다.

3. 人無信은 사람이 신의가 없으며 人而無信은 사람이면서 신의가 없다는 의미다.
4. 輓(예)는 소나 말의 멩에를 연결하는 고리이고 輓(월)은 멩에를 가로 연결한 나무를 잇는 고리이다.
5. 以是는 이것을 가지고 以何는 무엇을 가지고라는 뜻으로 何以로 도치된다. 그리고 그 뜻은 “어떻게”라고 된다.

23 子張問十世可知也 子曰 殷因於夏禮 所損益 可知也 周因於殷禮 所損益 可知也 其或繼周者 雖百世 可知也

1. 자장이 묻기를 열 왕조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하자 공자가 말씀하였다.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따랐기 때문에 더하고 던 것을 알 수 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따랐기 때문에 더하고 던 것을 알 수 있으니 혹 주나라를 계승한다면 비록 백 왕조 후라도 알 수 있다.
2. 당나라 때에는 태종 李世民의 이름자인 世를 사용하지 못하여 代를 사용하였다. 世는 30년, 왕조, 세상의 의미를 가진다.
3. 夏나라는 음력1월을 正月로 하였고 殷나라는 음력12월을 正월로 하였으며 周나라는 음력 11월을 正월로 하였다.

24 子曰 非其鬼而祭之 諂也 見義不爲 無勇也

1. 공자 말씀하기를 제사를 지내야 할 귀신이 아닌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요, 의로움을 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2. 見義不爲 無勇也 見義而爲 勇也
3. 浩然之氣는 드넓고 큰 용기라는 뜻으로, 떳떳한 도덕적 용기를 가리킨다.